# 광주 챔피언스필드의 봄 야구팬 3만8천명 즐겼다

### 이틀간 두산과 시범경기
### 잔디공원·샌드파크 등
### 가족 단위 나들이 명소로

광주시민들이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새 봄을 즐겼다.

KIA와 두산의 시범경기가 열린 지난 15·16일 3만8000여명의 야구팬이 챔피언스필드 관중석을 빼곡히 채웠다. 단순 수치로 계산한다면 광주시민 40명 중 1명꼴로 경기장을 찾은 셈이다.

비공식 기록이기는 하지만 시범경기 홈 개막전이었던 15일 1만8000명(KIA구단 추산)이 경기장을 찾으며, 광주 경기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이 작성됐다. 지난해까지 KIA가 안방으로 사용한 무등경기장 야구장은 1만2500석이 만석. 지하 2층, 지상 5층의 챔피언스필드에는 2만2000명이 입장할 수 있다.

한 낮 기온이 20.7도까지 올라 봄기운이 완연했던 16일에는 전날보다 더 많은 2만여명의 시·도민들이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최다 관중 기록을 하룻만에 경신했다.

경기장 주변은 잔디공원으로 꾸며진 외야 등 이른 바 '소문난 명당'에서 야구를 관람하기 위한 이들로 이른 시간부터 북적북적했다.

오전 11시부터 관중석이 개방됐지만 입장을 기다리는 이들이 이른 오전부터 길게 줄을 이뤘다.

새 구장에서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인 KIA 선동열 감독은 "오전 8시에 경기장에 출근했는데 그 시간에도 입장하려고 기다리는 팬들이 계셨다. 많은 분들이 야구장을 찾아주셨다. 팬들이 편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경기장이 생겨서 좋다"고 언급했다.

중앙 특별석과 함께 개방형 외야는 챔피언스필드 최고의 명소로 떠올랐다. 챔피언스필드 외야는 따로 관람석을 세우지 않고 잔디공원 형태로 꾸며져 있다. 자유롭게 자리를 잡고 경기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외야석의 가장 큰 특징. 모래로 채워진 샌드 파크 등이 마련되면서 가족 단위 관람객이 우선 찾아 야구장의 봄을 즐겼다. 돗자리는 물론 텐트까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KIA 타이거즈 팬인 이근선(36)씨는 "내·외야를 돌아다니며 경기를 봤는데 어느곳이든 시야가 좋았다. 내야 어디든 마치 포수 뒤편에서 경기를 보는 것처럼 박진감이 넘쳤다"면서 "몸무게가 90㎏ 가량 나가는데, 좌석간 너비가 넓어지면서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다"고 흐뭇해 했다.

다섯살 아들과 야구장을 찾은 최강(35)씨는 "일부 화장실 문이 닫혀있고 물이 나오지 않는 등 불편함도 있었지만 경기장 자체는 야구 보기에 최고인 것 같다"면서 "특히 외야석은 새로운 광주의 야구 문화가 될 것 같다.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나들이 장소로 손색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지민(여·26)씨도 "1루와 3루쪽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바비큐와 삼겹살을 먹으면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꼭 한 번 해보고 싶다. 기대된다"며 "다음달 정규시즌이 개막되면 가족들과 함께 야구장을 다시 찾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KIA는 주말 2연전에 이어 18·19일과 20·21일 각각 SK, 롯데와 홈에서 시범경기를 치른다. 경기 시작 시간은 오후 1시이며 입장료는 무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1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와 두산의 시범경기를 찾은 어린이들이 외야에 마련된 샌드파크에서 모래 놀이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신안 우이도에 '마리아' 닮은 열녀비 화제

### 1907년 건립 추정… 비석 아닌 동상 천주교 영향인 듯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진리마을 입구 오른쪽 바위 언덕에 세워진 높이 1m 남짓의 열녀비. 마치 '동정녀 마리아' 형상을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신안군 우이도에 마치 '동정녀 마리아' 형상을 한 열녀비가 화제가 되고 있다.

목포대도서문화연구원 최성환 교수는 14일 "최근 우이도 답사에서 마리아 형상을 한 인자한 모습의 열녀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발견 당시를 회상했다.

우이도 진리마을 입구 오른쪽 바위언덕에 세워진 높이 1m 남짓의 이 열녀비 주인공은 밀양박씨다. '상원김씨 열녀각' 안에 있는 이 비는 일반적인 비석이 아닌 동상 형태로 특이하다.

건립시기는 1907년으로 추정된다. 혼약하기로 한 남편이 바다에 나가 숨지자 영혼결혼식을 하고 시부모를 봉양한 박씨 부인에게 상원김씨 문중에서 세웠다고 기록돼 있다. 이런 비가 세워진 우이도는 천주교와 관련성이 깊어 열녀비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우이도는 '천주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전이 16년간 유배돼 살다가 생을 마감한 곳이다.

우이도 홍어장수 문순득(1777~1847)도 약 1만5000km를 표류, 필리핀(당시 스페인 식민지)에 가서 천주교를 경험하고 돌아와 이 마을에서 살았다.

최 교수는 "마리아를 닮은 열녀비를 세운 직접적인 원인이 될만한 증거는 없지만 정약전, 문순득이 주민들에게 천주교 영향을 끼쳐 이런 비가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주교 신자들이 성지순례로 머나먼 외국까지 가지 마시고 우이도에서 열녀비를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아마 세계적으로도 흔치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이도가 정약전, 문순득, 마리아 열녀비로 조만간 성지 순례코스 세계적 명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山地 규제도 전면 재검토… 공장·휴양시설 등 허용 추진

국토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산지(山地)를 공장과 사업체 등 산업입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 규제가 전면 재검토된다.

개발과 보전으로 이분화된 현행 산지관리법상 분류 체계에 '생태적 이용'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등 정부 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산지 규제 완화 방안을 최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후속 과제로 추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국 산지의 77%가 보전 산지로 지정된 데다 현행 산지 관리 체계가 산지 보호에 치중하고 있어 효율적인 이용에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 경제 및 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산지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전에 무게 중심이 실린 기존의 산지관리법은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기재부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고자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달 초 용역 제안 요청서를 냈다. 기재부는 지역 경제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산지 이용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지 관리 체계를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고 용역 요청서에 기술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개발(준보전산지)과 보전(보전산지)의 이분법적인 체계 중간에 '이용'이라는 개념을 추가하는 방안을 기정사실화했다. 산지 이용 대상은 공장과 사업체 등을 의미하는 산업입지로 설정했다.

정부는 휴양과 힐링,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을 산지 이용 우선 검토 산업으로 분류한 가운데 택지나 산업단지, 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산림청도 이런 맥락에서 10년 단위로 산지 구분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지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전통 난방 '온돌'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우리 고유의 전통 난방 양식이자 주거문화인 온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온돌 기술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학회 등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온돌 기술이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할 만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전통 온돌 기술과 관련 문화, 연혁과 유래, 특징을 파악하고 전통 온돌과 해외 난방 방식을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또 연구용역에는 온돌 기술을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과 로드맵도 담기게 된다.

이런 사전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예산 작업을 벌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온돌의 세계유산 등재 작업에 시동을 걸게 된다.

온돌 기술은 전통 주택건설 기술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아파트 등에 일반화돼 있는 온수 보일러를 이용한 바닥난방이 그것이다. /연합뉴스

# 첫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208명 선발

안전행정부는 16일 "2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 5~9급 국가공무원 208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렬별 선발 인원은 행정 116명, 직업상담 20명, 운전 14명, 우정 10명 등이다.

원서는 17~2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접수한다.

원서접수 이후 4월21~25일 1차 서류전형, 5월29~31일 2차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6월 27일 발표한다. 합격자는 3주간 직무역량 등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소속 부처에서 근무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20시간을 기본으로 15~25시간 일하지만, 기존 일반 공무원과 같은 정규직 공무원이다.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일반공무원과 같고 공무원 정년규정을 적용받는다.

원서접수 관련 문의는 안전행정부 콜센터(02-2100-3399)나 인력기획과(02-2100-8560)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중-52297호

老안시력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운암동방면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의원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광주광역시 공고 제2014-191호

## 2014년도 광주광역시민대상 수상후보자 공모

광주광역시 시민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제28회) 광주광역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4년 3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1.수상부문(5개부문)**

가. 사회봉사대상
- 희생적인 봉사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
- 이웃돕기에 헌신한 실적이 뚜렷한 자
- 경로효친사상이 투철한 자
- 신문, 방송, 잡지, 출판 등의 분야에서 언론창달과 출판분야에 공헌한 자
-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선진 광주건설에 크게 기여한 자

나. 학술대상
-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교육분야에 괄목할 만한 연구실적 또는 새로운 논문발표로 학술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다. 예술대상
- 공간예술, 무대예술, 전통예술 등 예술진흥 발전에 기여한 자
-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 문학분야에 공헌한 자

라. 체육대상
- 체육지도 및 행사를 통하여 지역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한 자
-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마. 지역경제진흥대상
- 기업발전과 지역 내 투자유치를 위해 공헌한 자
- 과학기술 창달과 수출산업 육성에 공헌한 자
- 시민 저축의식 함양에 공헌한 자

**2.시상인원 및 내용**
- 시상인원 : 부문별 각 1명(단,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함)
- 시상내용 : 시민대상 상패

**3.수상후보자 자격**
- 각 시상부문에서 광주광역시의 명예선양과 지역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 포함)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한 자(사망자 포함)
- 같은 공적으로 시민대상을 받은 일이 없는 자 또는 같은 공적으로 다른 광역시도에서 시도민의 상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는 제외

**4.수상후보자 추천**

가. 추천권자 :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전문대학 이상의 총·학장,시민 20인 이상의 연서

나. 구비서류
-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이상 소정양식) 각 1부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현재 3년간 주소이력 확인이 가능한 것) 1통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 범죄경력조회서류 1부
- 기타 공적 증빙자료(관련 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1부

다. 추천서류 접수
- 기 간 : 2014. 3. 17 ~ 4. 16(공휴일 제외)
- 장 소 : 광주광역시청 시민협력관실(2층)

※ 우편접수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시민협력관실(우 502-702)

- 방 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4. 4. 16 도착분까지 유효)

**5.수상자 발표** : 2014. 5월 초순

**6.시 상** : 2014. 5. 21(제49회 시민의 날 기념식)

**7.기 타**

가.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시민협력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613-2915, 팩스 613-2919)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 · 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 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전화 본 점:361-3515 양 동 지 점:362-6164
각화지점:268-6163 풍암금호지점: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46번길 3